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 금요일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첫 시간부터 <사탄을 멸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해하려고 연구하니,
우리도 사탄을 멸하기 위해 매일 연구해야 됩니다.

<선생이 연구하는 것>과 <사탄이 연구하는 것>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생각’ 으로 사탄을 연구하고,
<사탄>은 ‘자기 생각’ 으로 연구하니
하늘 편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선생이 끊임없이 새벽을 깨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코치하시기를, “끝까지 해야 사탄을 이긴다.” 하셨다. - 이 한마디 속에 ‘백 가지 잠언’ 이 들어 있다.
2. <사탄>은 끝까지 못 간다. 왜? <사탄>은 ‘타락된 존재’ 이고, ‘하나님께 멸망을 선고받은 존재’ 다. 그래서 그 주권이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
3. <인간>은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거나, 멸망받을 짓을 안 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 이 무엇인지 몰랐고, <사탄>은 알고 ‘하나님의 이상세계’ 를 이루는 것을 막았다.

4.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을 좋아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을 안 좋아하는 존재’로 변질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사망했다. 끝났다.” 하고 멸망을 선포하셨고, 그리함으로 <사탄>은 ‘하나님께 멸망 받은 꼴’이 되었다.
5. 사탄은 멸망을 선고받았는데도 왜 우리를 건드릴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는 데에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고 건들지만, 결국 멸망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간다.
6. <사람>은 ‘영물’이 아니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착오도 있고, 착각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다. <육신>이 그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도 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데 <사탄>은 ‘영물’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막고, 사람들을 꺾고, 타락시키고 그런 짓들을 한 것이다. <사탄, 루시퍼>는 본래 ‘천사장’이었다. 본래 천사는 근본이 ‘영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것을 알고 있다. 가령 <어른이 행한 것>과 <어린이가 행한 것>은 다르다. <어른>인데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10년, 20년 됐는데도 또 힘들다고 하느냐? 놔둬라.” 하고, <어린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잡아 주자. 어리니까.” 하는 것과 같다. <천사>는 근본이 ‘영물’로 창조됐기 때문에 어른과 같은 입장이고, <인간>은 ‘육신’이 있는 고로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다.

7. <사탄>은 ‘하나님의 멸망’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까지 가는 주권’이 없고, ‘생명길을 가는 주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도 누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자기 주권’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8.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멸망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같이 계속 ‘사탄에 대한 코치’를 받는다. 그러나 사탄은 못 받는다.
9. <사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니, 사탄이 이것을 알고 가서 즉시 다른 사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를 내 혼으로 확인했다. 고로 사탄 두 마리를 잡아서 찌꾸러뜨렸다.
10. <사탄>은 안 끼는 곳 없이 쫓아다닌다.
11. <사탄>에 대해서도 알고,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
12. <군인들>도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국가>도 알고, <적>도 알아야 한다. <민간인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 ‘적’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군인들과 같이 <사탄과 싸우는 세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13. 선생은 섭리사뿐 아니라 개신 기독교, 천주교까지 사탄이 건들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며 늘 기도해 왔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기독교가 <시대>와 <주>를 불신한 것과 상관없이 했다. 불신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그 육신’을 통해 행하시기 때문이다. 고로 섭리사, 개신 기독교, 천주교뿐 아니라 악에 속한 자, 유혹받은 자, 고꾸라진 자들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는 주권’이 있으니 끝까지 행하게 기도해 줬다.
14. <사탄>은 끝까지 못 간다. 고로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기니, 끝까지만 가라.
15. 성경을 보면, <사탄>은 ‘666 수’다. <우리>는 ‘777 수’다. 고로 끝까지 하면, 우리가 이긴다. 6보다 7이 한 수가 높기 때문이다. 그 한 수를 가지고 이긴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안 하면, 사탄이 이길 수 있다.
16. 처음에는 항상 사탄이 이긴다. 왜? 사탄은 ‘초반’부터 해서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끝까지 할 수 없으니, 초반부터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끝’에서는 우리의 주권으로 역사가 뒤바뀐다.
17. 힘이 없어도, 못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잠을 자고 안 해도 포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긴다. 왜? <사탄>은 때가 되면 가다 죽기 때문이다. <사탄이 가는 고통의 나라>로 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끝까지 한 우리>만 ‘주인’이 된다. 이 말

숨을 전하면, <사탄>은 이유를 달면서 자기도 끝까지 한다고 큰소리치지만, 그렇게 10억만 번을 큰소리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사탄이 끝까지 못 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못 하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지상의 황금 천국 휴거 역사’를 이루지 않았느냐. 우리가 도망가서 이 역사를 한 것도 아니고, 사탄들 앞에서 담대히 해 버렸다.

18. <사탄들>은 주가 ‘시대 십자가’를 지고 가니 못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좋았다. 더 집중하게 됐고, 그렇게도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하게 됐고, 말씀을 펴부어 주면서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까지 했다. 안 보이니 애간장 태우고 심정 태우면서 더 일체 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때가 되었다. 그리함으로 결국 ‘휴거 역사’를 하고 말았다. <사탄들>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승리한다.” 했지만, 결국 우리가 다 행해 버렸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 날, 그 때, 그 시에 다 해 버렸다. 비바람이 친다고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결혼 날’이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다.우리는 이와 같이 역사를 해 왔다.

19. “사탄은 끝까지 못 한다.” -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늘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끝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도 구약과 신약을 지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행하시어 ‘끝자락’에서 ‘성약역사’를 하셨다. <성약역사> 때는 하나님이 “여봐라!” 하시며 속 시원하게 행하신다. 구약 때 못 한 것과 신약 때 못 한 것까지 다 해 버리신다.

20. <하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서 쉽고 어려운 것이 좌우된다.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돼서 힘들어한다. 이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좌우되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리 해 버린다.
21. 자꾸 해 버릇해야 쉽다. 해 버릇하면 너무 쉽고, 안 해 버릇하면 너무 어렵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을 해 버릇한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쭈서서 못 견딘다. 뛰고 달리는 것을 해 버릇하면 쉽다. <해 버릇하는 자동 기계>로 자기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쉽다.
22.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따지지 않는 것이다. 모순도, 잘못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한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니,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좋아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렇게도 좋아하신다.
23.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든지 ‘영원성’을 가지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크고도 큰 것, 표가 나는 것, 엄청난 것을 구상한다. 일시적인 것은 너희가 해라.” 하셨다.
24. 함께 행하자고 말씀했다고 해서 지구상의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다. <자기가 앓을 자리, 설 자리>를 알고 하는 사람이 대단

한 사람이다.

25. <사람의 뇌>는 ‘한정된 뇌’다. 그래서 한 번에 기억이 다 안 난다. <시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며 그 시간을 뇌를 연구하는 데 썼다. 뇌를 가지고 실험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면서 정확하게 알게 됐다. <뇌>라는 것은 한 번에 다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다. 고로 <큰일>은 한 번에 못 하니 쪼개서 일을 해야 되듯이, 그와 같이 우리 할 일도 한 번에 다 생각이 안 나서 못 하니 쪼개서 해야 된다는 것이다.

26. <돌>은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어디에 놓는지’가 참으로 귀하다. 고로 <선생>은 평소에 운동장을 계속 돌면서 ‘돌 조정 사이에 이 하나 빠진 것과 같은 허공이 있나? 돌을 꼭 세울 곳인데 안 세워진 곳이 있나?’ 하고 집중적으로 본다. 더 좋은 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나, 혹은 계단처럼 대열이 안 맞는 곳이 있어서 다른 돌을 넣어야 하는 곳을 발견하면, 그것을 머리에 넣어 둔다. 그러면 나중에 돌을 사러 갔을 때 그 위치가 딱 생각난다. 하루는 오로라 돌을 사러 갔는데, ‘이 빠진 곳에 세울 돌’이 하나 보였다. 키가 크고, 6m가량 되는 돌이다. 결국 이 돌을 사 와서 세워 놓으니, 이가 빠진 곳에 이를 해서 박아 놓은 것같이 되었다. 그래서 <돌을 사 오는 것>도 귀하고, 또 ‘어디에 놓는지’도 귀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위치, 제 위치>에 갖다 놔야 한다.

27. <줄무늬 돌>이 있어서, ‘이 돌은 예수님 동상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오르막 좌측에 두면 좋겠다.’ 하고 가는데, 계단 우측

에 있는 첫 번째 돌이 시원찮아 보였다. 고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돌, 줄무늬 돌>을 앞에다 놓고, 조금 못한 이 돌은 뒤에 놓자.’ 하고 첫 번째 있는 돌을 빼서 뒤에 박았다. 그러고서 성령님께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했더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으면, 그때는 도와준다. 그러나 자기 주관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감동을 꼭 기다려라.” 하셨다. 고로 마음을 비우고 나서 돌을 바꾸는 것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를 늘 생각해야 된다.

28. <호랑이돌>이 있는데, 이 돌을 놓으면 좋겠다고 한 군데 정해 놓은 장소가 있었다. 모두가 그 위치가 좋겠다고 해서 실제 갖다 놓으니, 안 맞았다. 아무리 계획했어도 행했을 때 안 맞으면, 하면 안 된다. 돌과 돌 사이가 안 맞고, 너무 특이하게 튀어나와서 성령님께 이야기하니, 성령님께서 딱 한 군데를 쳐다보게 하셨다. 개선문 위에 돌을 얹어놓은 곳이 있다. 그 위에 갖다 놓았더니 역시 ‘호랑이 명당’ 이었다. 그 높은 곳에 가져다 놓았다. 이와 같이 안 맞는데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해도 되기는 하지만, 안 맞는데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족이 없으시다.

29. 자기가 구상해 놓고 해 보면, 안 맞고 안 될 때가 있다. 그때는 순리로 바뀌야 된다. 성령님께서서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 계속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현실의 계시>입니다.

<주>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
말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30. 어제는 여섯 개의 돌을 놓았다. 성령님께 돌들을 어디에 뒀는지 물으니, 성령님께서 “임시로 어디에 두자. 그러려면 앞의 돌을 치우고 그 자리에 뒀야 된다. 아까 돌을 세우고 치워놨으니, 그곳에 돌을 얹자.” 하시며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다. 성령님과 같이 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 순리에 맞게 모두 잘 끝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 일을 할 때 하나님 생각도 하고, 성령님 생각도 하고, 주님 생각도 하고, 자기 생각도 하면서 해야 된다. 늘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하면 일이 잘된다. 선생이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구상을 다 받겠느냐. 하나하나 하면서 따르는 자들의 상한 마음도 풀어 주고, 모든 일도 풀어 나가면서 하는 것이다.

31. <사탄들>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말만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펴고 완성시킨다. 모두 할 때, 이같이 해야 된다.

32. 하나님은 ‘필요한 때’만 행하시니, 안 된다고 시험에 들지 마라.

33. 하나님은 ‘전체’를 행하시고, 또 ‘각 분야’마다 행하신다. 선생이 묻기를, ‘하나님은 어제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전체를 행하였고, 각 분야별로 또 행하였다.” 하셨다.
34.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운동>도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무리해서 하면, 더 큰일도 못 하게 된다.
35. <사탄>은 지능이 모자라서 끝까지 못 한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
36. <사탄에 속한 자>도 그러하다. <사탄에 속한 자>도 지능이 모자라다.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끝까지 못 한다.
37. <사탄>은 어둠을 좋아한다.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다. 그러지 않으면, ‘불의’가 드러나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人)사탄들>도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꾸 숨는다.
38.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면, ‘사탄의 주관권’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면, ‘사탄’은 떠나간다.
39. 주와 함께 행하여라. 지금이 ‘주와 함께 행할 그 때’다.
40. <새 시대 사람들>과 함께 행하여라.
41. <사탄>은 매일 너의 생명을 해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한다. <사

탄의 깊은 간교함>을 알고 대적해라. 너희도 노력하고, 사탄을 연구해라.

42. <사탄>은 먼저 교회에 와서 너희를 기다린다. 너희가 ‘사탄’보다 먼저 와서 사탄을 기다려라. 그리고 사탄이 오면, 발로 차 버리고 멀리 쫓아 버려라.

43. <사탄, 마귀, 귀신>을 알고 대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사라진다. <사기꾼>을 알면, 사기꾼이 피한다. 왜? 상대가 자기의 모순을 알기 때문이다.

44.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서 싸워라. <인생>은 알고 보면 늘 싸울 일들이다. <병>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자기 일>과 싸워야 되고, <자기>와 싸워야 되고, <자기와 다투는 자, 겨루는 자>와 싸워야 된다. 이같이 <싸울 일>이 너무 많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서 싸워야 된다.

45. <자기가 행할 일>을 정녕코 행하여라. 그러면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46. 강하고 담대하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 사탄이 그 힘을 흔들지 못한다.

47. <마음>이 굳건해야, ‘사탄’이 유혹하지 못한다.

48. <깨닫고 행할 때>는 사탄이 ‘틈’을 못 탄다. <사탄>이 유혹

하지 못할 것이다.

49. 완전히 행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행하여라.” 하셨다.

50. 온전히 행하여라. 하나님처럼 온전히 행하여라.

◎ 기도하겠습니다.